



2003년
2월 15일
제 54호

춘천성시신문

나침반

교회개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움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1998년 9월 15일 창간 발행인 임신영 http://www.holycc.org Fax.033)257-1260 Tel.033)256-1260 춘천시 효자1동 373-90 (☎200-091)

31년 성시화 운동을 이끈 성시화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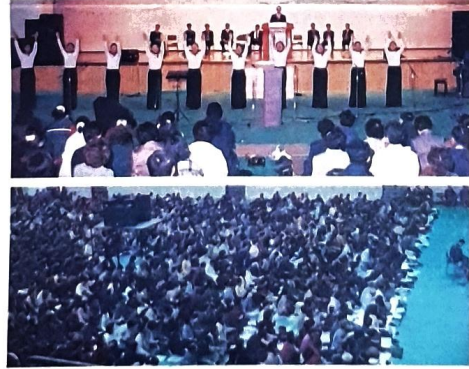
- 매주 1회 기도, 총력전도, 십자가 시가행진, 신문발행 -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임신영 목사(동부장로교회)는 1월 24일 새해 첫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2003년도 사업계획을 협의 결정하였으며, 정관을 개정하였다. 문장 등 자구수정은 별도로 정한 실행위원(김기태장로, 김영명 안수집사, 이학규장로 조충환목사)에게 위임했다. 본부장 임목사는 "옛 지체식을 옮기지 말라(잠언22:28-29)"는 말씀으로 춘천복음화를 위한 성시화운동에 열심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2003년도 성시화 운동은 ▲매주 1회 성시화목요기도모임 ▲매월 1회 성시신문 발행 ▲4월 20일 오후 3시 부활절 십자가행진 ▲7월 4-7일 총력전도 실시 ▲11월 중 추수감사 축제(농협강원지역본부 앞) ▲크리스마스성탄트리 전시 및 찬양 ▲10월 중 성시화를 위한 부흥전교회 ▲시민운동 전개 홀리클럽 활성화 협력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모든 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고 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1972년 8월 춘천지역 대학성교회 운수일간사와 일반 청년들에 의해 일어났고 윤간사의 본부 진출로 당시 성경공부를 함께하던 조남진, 문선

재, 이학규, 이순훈, 정재훈 등에 의해 지속되었으며 유망장사를 초청 말씀을 듣는 자체운동을 벌여오던 중 74년 조용기목사를 초청 도시전도를 위한 부흥집회(효자동신내체육관)를 개최하였다. 당시 유기준 춘천시장이 예수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의 협조로 시청 광장에서 매년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81년 춘천지검 차장검사로 재출한 전용태 권사에 의해 기관 단세장 등으로 구성된 성경공부 그룹이 일어나고 그들과 직장선교연합회(회장 조충환)가 협력하여 성시화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고 다음해 8월 2일 교파를 초월한 목사, 장로, 신자들이 모여 성시화를 위한 연합부흥회를 열었으며 익일 오후 3시 700여명의 성도들이 피켓과 어깨띠를 두르고 시청에서 온의동종합운동장까지 "예수 평화대행진"이라는 시가행진을 벌여 만방에 성시화운동을 선포했다. 또 이들은 모든 교회가 연합으로 성시화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기독교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어났고 이를 수용한 대표적인 교회 목사들에 의해 1996년 9월 목사, 장로들을 회원으로

하는 기독교연합회가 구성되었으며 2002년 12월 수많은 연합체를 통합한 연합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이제 춘천성시화운동은 전 교회 모든 연합조직이 함께하는 운동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성시운동본부의 정관개정문 제7조(실행위원) 수를 30인 이내로 하고 제11조(본부장, 실행위원) 임기를 1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제8조(자문위원) 실행위원회는 약관명의 자문위원

을 위촉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춘천성시화운동은 지난 28년간 평신도가 주도하는 운동에서 2001년 목사본부장을 추대함으로써 모든 교회의 운동으로 변신하게 되었다. 그간 걸림돌이 되었던 모든 문제는 이제 해소되고 온전한 기독교인들의 운동으로 역량을 지니게 되었으며 교회이름으로 하기 곤란한 시민개혁운동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강원노회 군경부 27사단 진중세례

비전2020을 실천하는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지회장 박상호목사, 제일장로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 군경부 주관 사업으로 지난 1월 18일(토) 오후 2시 화천군 시내면사거리 27사단 신병교육에 시온성교회에서 2003년도 첫번 진중세례식을 집례하였다. 세례식은 박한성목사(시온성교회)의 사회로 김승길목사(북춘천교회) 대표기도, 이희준목사(신앙애교회) 성경봉독, 제일교회 태연중창단 특별찬양에 이어 노회장 최규형목사(홍천화교교회)의 "너희를 위해 하리라"는 주게아래 세례식을 위한 설교말씀이 있었고 군중부의 수세화성자 호령에 따라 예복을 착용한 목사의 집례로 장병 450명이 세례를 받았다. 마칠규장로(춘천제일교회) 광고, 부노회장 김성수목사(원성제일교회)의 축도를 끝으로 진중세례식을

마쳤다. 이날 세례식에는 수세자와 병사 650명이 함께 했으며 노회목사 16명, 장로 17명, 중창단이 현지 부대를 방문 진중세례예식을 도왔으며 소요경비를 지원했다. 금번 세례받은 장병들은 일평생 세례의 감격을 간직하고 가까운 동료와 가족,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돕는 축복의 메신저가 될 것이다.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는 군복무와 사역에 방관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참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다. 군복무 기간이 일생 중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적기임을 간파하지 말 것을 역설하고 있다. (자료제공: 이순훈장로)



제84주년 3.1절 기념 연합예배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임신영목사)는 오는 3월 2일(주일) 오후 7시 동부장로교회에서 춘천지역 성도들과 한자리에 모여 2003년 3.1절 기념예배를 연합으로 드린다. 연합회 관계자는 춘천의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예배드린 수 있도록 사단 광고를 통해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날 초빙강사는 괴영민 목사(서울감남중앙침례교회)이며 예배는 남춘천감리교회 유진형목사(연합회 부회

장)의 사회로 시작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 춘천복음화를 위한 특별기도 김광국 목사(성광장로교회), 세계평화를 위한 특별기도 박산운 장로(춘천직장선교연합회장), 황병호 장로(춘천기독교장로회연합회장) 대표기도, 동부교회성가대의 특별찬양, 연합회장 임신영 목사(성시운동본부)의 감사소개와 인사, 총무 김지현 목사(신사우동장로교회)의 내외귀빈 소개 및 광고가 있을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동부교회

담임목사 임신영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137 /
교회사무실: TEL. (033)252-5959
교회 홈페이지 http://www.chdongbu.or.kr/

기독교대한감리회 춘천석사교회

담임목사 임택창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60-1 /
교회사무실: TEL. (033)261-6823
석사교회 홈페이지 http://sschurch.or.kr/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 윤철중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86-7 /
교회사무실: TEL. (033)256-3537
교회 홈페이지 http://www.ccchc.com/

기독교대한감리회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 권오서

강원도 춘천시 회계동 202 /
교회사무실: TEL. (033)259-3000
교회 홈페이지 http://www.chmchurch.org/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춘천교회

담임목사 김주환

강원도 춘천시 동면 인천리 595-1 /
교회사무실: TEL. (033)253-2741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 사광정

춘천시 회계동 669-2번지(회계동 동사무소 옆)
교회사무실 ☎ 267-2001 FAX.267-2002 /
목사관 261-2002

기독교대한감리회 평화감리교회

담임목사 한균

200-853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1-1
(후평동 시내버스소 중점 앞)
TEL. 교회사무실 241-5621 FAX.241-5622 /
목사관 265-8525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춘천소양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114 /
교회사무실: TEL. (033)253-2004
교회 홈페이지 http://www.soyangchurch.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늘사랑교회

담임목사 정재호

춘천시 후평2동 67-11번지 / 교회사무실 TEL.252-8219
늘사랑교회 홈페이지 http://www.everloving.or.kr/

대한예수교장로회 일신교회

담임목사 이은주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713-5번지
교회사무실 ☎ (033)257-7141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하나교회

담임목사 김길홍

춘천시 후평1동 711-25번지(세경3차APT 맞은편 건물 3F)
TEL. (033)254-9599 / H.P.011-369-5098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시암교회

담임목사 최상도

춘천시 동내면 사임1리 1174번지 /
교회사무실 TEL.261-7727
사임중교회 홈페이지 http://www.saam21.org/

사설

진정한 연합은 포용하는 마음으로

시도바울은 성경에서 아무일에도 지 더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일을 돌이켜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이켜보아 나의 기쁨을 증만케 하라 고 가르친다. 교회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가 되려면 돌배나무에 참배나무를 집 붙이기는 과정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자기를 내세우려는 욕구가 강하고 겸손과 포용하는 마음이 따르게 된다. 순진한 것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순진한 기쁨은 연합은 교회들의 연합과 목회자 결집도 연합, 대소연합체들의 연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서로가 낮아지기를 돌아보아야 할 일이 내재하고 있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독실한 연합회들이 조금의 유익도 안된다. 연합회 내에는 대소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나의 중심

을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믿는 신도들에게는 이해가 쉬운 말일 것이다. 남도 남을 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처럼 자기를 업지려 붙어보며 연합을 위하여 양보와 겸손을 실천해야 하겠다. 진정한 연합은 각자의 노력 위에서 성립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연합된 모습은 교회를 바르게 하는 작업이며 사회의 교회에 대한 시각을 개선하는 길이다. 시민들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마한가. 유감스럽게도 청천이나 존경보다는 손가락질과 비판의 소리가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목회는 교회,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30여년 전 최초 연합회는 특권적식을 일소하지 못하므로 처음 교회를 세운 모교인데 이같이 하여, 배척하고 왕따시키려는 사제가 전례하고 있다.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서로 협력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인격을 지녀야 한다.

시민사회 개혁에 필요한 크리스찬

현대를 정보사회라고 하지만 어떤 정보도 남치는 정보 홍수시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신문 방송 서적 인터넷 전화 핸드폰을 통해 인구가 개방되고 가속화되고 있다.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그 위력을 볼 수 있었다. 오늘 교회들은 이러한 정보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듯 태연스럽게만 있다. 우리는 시대적인 바른말에 귀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2월 초 교회의 담임 이동문제로 담임목사와 장로형제가 신임목사와 싸움을 벌이다가 신임목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말경 한 교회와 관련하여 3천만원을 전출 횡령 혐의로 20명의 불우한 환자를 돕는 기성회와 연계를 하여 국민들의 비난을 샀다. 흥분을 우리 사회의 부패상을 치유가 될 정도로 말한다. 교회의 세속화, 물질화 수준은 어떠한가. 대강당이 필요하다. 가톨릭은 개신교회를 가리켜 '황외지'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고 한다. 속죄권을 판매하기까지 부패했던 교황청을 향해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

한 마틴루터는 개혁을 성취하였다.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면죄부 관행은 11세기에 시작되었고 원래 교회 자체가 부패한 세상적인 형편에 대한 영향을 모았었는데 나중에 고해사(한자)들을 연옥의 형벌로부터 속(한자)함을 받고 면죄부를 구입한 자는 형벌과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도록 판매되었다. 이는 교회 재정구조에 중요한 의미이며 전쟁을 위한 재정확보, 사치생활의 필요 충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찬들의 세속화 수준도 이러한 수준에 올라갔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시민사회의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은 물론이며 교회 개혁에도 남다른 시각을 지녀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하므로 사탄을 꾸짖었다. 크리스찬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야 함을 주지하셨다. 크리스찬은 시민사회 개혁에 앞장서서 시민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신교회소식 · 교계단신

- ◆**춘천일신장로교회(이승우 담임목사)**는 지난 1월 30일(목) 성시화기도모임 회원들에게 명절 선물 3단 도식 1박스를 선물했다.
- ◆**춘천소양강교회(이영호 담임목사)** 특별선배기도회가 2월 10일 시작되어 5월 20일까지 본교회 지하예배실에서 열리고 있다. ※소양강교회 사무실 TEL.253-2004
- ◆**춘천중앙성결교회(윤철호 담임목사)**는 2월 16일(주일) 오후 2시 찬양예배에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03년도 1학기 장학금전달식을 가졌다.
- ◆**춘천동부장로교회(임신영 담임목사)**는 주간 유아교육 프로그램인 아기학교를 개설하고 매주 목요일(예정)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생후 24~48개월된 어린이와 어머니를 위한 자유놀이, 노래와 율동, 세조, 예배, 간식, 성경배움, 만들기, 야외학습, 인형극 관람, 소풍, 어머니 교실을 마련했다. 신청접수는 2월 16일~22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40명이다. ※원서교부 및 접수: 춘천동부교회 사무실(TEL.252-5959)
- ◆**춘천신성리교회(김장수 담임목사)** 심령대부흥회가 오는 3월 2일(주일) 저녁 7시 5분(주) 저녁 7시 열릴 예정이다. ※초청장사: 수원 조원교회 서정달 목사(신성교회 사무실 TEL.256-5554)
- ◆**춘천세종교회(이기철 담임목사)**는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심령대 부흥회를 개최한다. 강사: 남상하 목사 ※문의: 257-3512

춘천 기독교 직장인 정오예배 안내

일시: 1월 28일(화) 12:00(예배)~12:35(식사) 장소: 동부장로교회
설교: 오승훈 목사 사회&안내: 춘천직장선교연합회 회원
기도&찬송: 춘천직장선교연합회 회원
일시: 2월 25일(화) 12:00(예배)~12:35(식사) 장소: 동부장로교회
설교: 조승환 목사 사회&안내: 춘천직장선교연합회
기도&찬송: 강원도청직장선교회
춘천직장선교연합회 정오예배위원장 정오예배 H.P.019-387-7110
(연락처비밀번호) 우체국 202267-02-050582 예금주: 홍남철

책과 신앙의 만남

저자 도덕훈 목사는 16년 동안 호남신학교 신학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3월부터 광주 서석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본지는 미국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개편으로 누가복음 16장을 문학·역사비평학적으로 상세히 분석한 학술저서이다. 그는 머리말에서 신앙생활 특히 "올바른 재물관과 재물의 바른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한 예로 "구약성서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금지 명령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신약성서에서는 우상숭배금지 특히 바알이나 아세라 등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은 없으나 새로운 형태의 우상금지 명령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라고 한다. "재물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나 돈이냐?

을 우상숭배라고 할 만큼 올바른 재물관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의 문제를 "물질화를 나누어 쓰는데" 결함이 있다고 한다. "기독교계연감에 의하면 1년에 약 3,500만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약 4억명의 사람들이 아사 직전에 있으며, 인류의 1/3이 삶을 빼려고 애쓰는 반면, 인류의 2/3는 굶지 않고 먹고 있는데, 그 풍요로운 1/3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타당하나 그렇다고 전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나만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율법적 복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할 '공동의 복'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서 주신 복을 지혜롭게 알아서 사용해야 할 정치가의 사명이 우리의 것이 아닐까? 불완전한 재물("재창적 재물")을 재창적으로 소비하는 정치가가 지혜로운 정치가가 될 수 없듯이, 말서준 재물을 단지 말고만 있는 우리가 재물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없는 일이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부자는 나사로에게 불완전한 일을 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속적 운명은 내세에서 완전히 역전된다. 나사로의 삶에 대한 책임이 부자에게 있음을 교훈 해 주는 것이다. "부"의 복은 천국을 들어가는 데 참으로 방해물이다. "부"의 가치는 "나눔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가치를 지니는 것 같다. 부자의 가치는 나눔을 통해서 가난해 질 때까지 나눔 때, 참된 가치가 있으리라! 어느 부자가

나눔을 통해서 가난해 지려고 하는가! (도둑개 있지만?) 그러기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타나기 바랄까에 들어가는 것 보다 더 합당하고 하지 않는가? 나눔은 것을 배부지도 알지도 못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며 복권을 사느라 천국이 떠돌아다니는 이데 천국의 복과 나눔의 복을 아는 지혜로운 정치가가 되지 않으리라!

(오덕훈, 한국신학연구소)



변석규 목사
춘천신림장로교회

홀리클럽 봄 조성 위한 회의 개최

춘천Holy Club(회장 허천 장로, 총무 신종철 피택장로)는 전국 최초로 창립된 클럽으로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일선교회와 2월 18일(화) 오후 6시 한미교회(석정길비 옆)에서 친제회 모임과 기도예배에 이어 회장의 주제로 회의를 열어 사업계획과 클럽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춘천서지방 연합회장 허광웅 장로



강리교 춘천서지방 남산교회는 총회를 개최하고 2003년도 임원을 개선했으며 회

장로 허광웅 장로(춘천목양감리교회)가 선출되었다. 새로 조직된 임원 명단 △허광웅 장로(목양교회) △부회장 박부근 장로(중앙교회) △총무 김규현 장로(중앙교회)

동부연회 장로회장 박영식 장로 선출



강리교 동부연회 장로회는 지난 1월 27일 제12회 정기총회를 열고 2003년도 회장을

주 문진장리교회 박영식 장로를 선출했다. 박회장은 앞으로 2년간 동부연회 발전과 장로들의 영성훈련, 원로장로 위촉회 그리고 선교활동을 하게 된다.

춘천 서지방 장로회장 박부근 장로



강리교 춘천서지방 장로회(회장 김기태)는 2월 8일 오후 5시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하였다. △회장 박부근 장로(춘천중앙감리교회) △부회장 허광웅 장로(춘천목양감리교회) △총무 이필준 장로(춘천남부감리교회)

Manna

리더의 책심

리더십은 귀한 소명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다. 리더는 따르는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기회와 그 수 있는 영향력을 함께 받았다. 그러나 조직을 결집해 하려는 열정을 잃고 대신 자신이 얻을 것에만 한눈을 팔게 되면 더 이상 참된 리더가 아니다. 리더의 삶에 교만이 뿌리내린 한 가지 확실한 징표는 이색사람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리더가 이색사람들의 고통에 무심하다면 그것은 교만으로 마음이 둔해졌다는 징표이다. 직권만에는 제정신이 없고 공통분단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계속 앞장서며 해를 고루 누린다면 그것은 리더십의 권위를 잃는 것이다. 자신의 사사로움 업적에 매달리느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캐개치는 리더는 리더십의 소명이 함당하지 못한 자다. 교만이 아니라하는대로 마음이 동하지 않거나 앞면 중 하나가 낙오하는 데도 독심을 버리지 않는 리더는 영적 리더십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나 마틴가치다.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농부에게 빵이 없다면 소식을 들은 "그런 케이크를 먹게 하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역사는 이런 매정한 리더들이 결국 몰락하는 것을 보여 준다. 리더가 사람들을 향해 마땅히 품어야 할 겸손의 마음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다. 어려움이 많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는 이렇게 썼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열려있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태타하지 않나"(고후 11:28-29) 참 리더는 따르는 이들을 돌봐라 할 책임을 결코 잊지 않는다.

(영적 리더십/원리 블랙커비 sammool발행)

교회부흥회, 세미나, 교육계획 고정관 설치

성서신문은 개교회, 단체, 연합기관이 실시하는 부흥성회, 세미나, 교육훈련계획을 독자적으로 열리는 고정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개교회, 교단, 연합회가 실시하게 될 예정된 각종 행사 계획은 6하원칙으로 기록해 알려주시고 이미 실시된 행사는 그 결과 내용을 기록하시고 관련 사진 등과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10일까지 아래 방법을 통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E-mail: holyc@holyc.org / holyc@hoanana.net FAX:252-1260
우편발송: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월드비전 대 성서신문



정경호 목사
춘천CCC대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1월 9일 오후 7시 30분 성서회화기도회를 시작으로 찬양 인도 시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힘을 잃은 듯 조용하던 기도회는 은혜의 용광로처럼 점차 그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모두 비싼 줄에도 각자 맡은 일과 헌신적집사요인 협회의 부와된 사역에 전력을 쏟으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다. 충실한 일꾼들을 통해 2003년 기도모임을 힘차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영광을 돌린다.

일상의 단상

나의 독백과 회개기도

밤에 흰 눈이 참 많이도 내려 쌓였다. 소복소복 소리없이 초저녁부터 내리던 눈의 위력은 절규하듯 내 귓전을 때리는 TV 아나운서의 귀해보고 싶었다. 어린 소녀시절의 행복으로 봉성했던 해맑은 시상은 언제부터 없는가 안개 같은 막연한 그리움이 되어 버렸고, 지금 구름같이 부풀고 날아간 인생의 언저리에 나목같이 서서 지친 여정의 삶을 어떤 수제화로 그려내 볼까?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본다. 내 기억이도 해낸 마음담던 날의 그리움의 답은 눈시리 슬픔과 간헐성의 외로움과 공허함의 무장이었다. 끝없는 산마루락 끝에 표정없이 우뚝 서버린 현상의 오묘중만 그 세월이 무척이나 후회되고 부끄러웠다. 행주치마에 가정의 행복을 담으며, 식탁위에 수저 놓으며 건강을 기원하고 열심히 걸레를 닦아 멀리 두 내 삶은 군더더기 같은 나의 일상이 되었음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리도 초록색 존재가 싫어졌는지..... 가끔씩 때로는 사람의 세태나 내가 교만의 전주목도 되었다가 때로는 사람에게 정말로 변형된 풍요로운 외로움과 절망의 그로로 신음하는 시기도 있었다. 또 사랑하는 자를 추억의 미로속에 가둔 죄로 고백하여 죽신하던 끝지 못하고 해바라기처럼 살지 못하며 건너지 못할 강을 두고 보내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갈대같이 휘청거리는 자를 취조하듯 경죄하는 내 마음에 지리하고 있는 악의 근성이 은뚝되어 있는 것을 들여다 보니 더욱 슬퍼진다. 지난 날의 흔적을 끌어내려야 할지 끌어모아야 하는지 너무 잔인스럽게 내 마음을 지배하는 지난 날의 선명한 추억에 시퍼렇게

멍들고 아픈담던 애상의 긴 추억이 노래를 다임시인의 교차로에서 나는 분노한 남은 사람을 잃어버린 백치의 아이다가 되어 버린 듯 하다. 이제 물 같은 풀려 코발트의 청아한 새 노래에 취하여 본다.

(2003년 1월 1일 강남금식기도원)

깨어진 질그릇에 허물을 담아 이고 자아익식을 잃어지고 강남금식기도원을 찾았다. 빗바늘 거울케튼 같은 어둠과 아픈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하느님 나의 아버지께 간청의 기도를 했다. 나비같이 나폴레옹의 잠옷을 벗기듯..... 죄에서 벗어나기를 또 죄의 무게를 달아보는 믿음없는 눈이 되지. 알기를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죄는 간발 눈처럼 또 내려 쌓이지만 내 기도의 결실이 무너지지 않게 끝까지 끌어내려야겠다. 내 어두움의 감정이 아닌 주님의 영광한 광명의 빛으로 내 영혼과 삶을 살게우며 향기로 온 존재의 냄새를 풍기리라 결심하고 통회하며 기도 쉬는 죄를 뱉지 않기를 다시 두는 모야 기도드린다. 이제 는 지난날의 독백으로 자살하며 살아왔던 큰 죄를 회개하며 의의 뱃기로 사람의 향기로 무장되어 순교정신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택한 종의 긍지와 자부심에 의류당 당하게 살아가리라. 주님의 참 평안과 평화가 기쁨의 서곡이 되어 어둠된 영안을 뜨게 하며 맑은 영혼으로 주를 찬양한다. 오늘도 소리없이 내려 쌓이는 죄를 끌어내려기 위하여 어둠을 짓밟고 그누르며 나는 주님의 전로로 가버는 발걸음을 향한다.

전선화 전사
(광명장로교회, 동강원노회총연도회장)

(2월) 성시화를 위해 후원하신 분들

- 《개인》 강성수 공영선 김철수 김기태 김현철 김원호 민병일 박동훈 박상은 성기는 안비에 안장소 임필남 오홍수 이순훈 이병연 이준택 이학규 임은경 황승호 한희현 허수영 홍성호 홍승복 박병환 장기영 정광복 조남진 조진희 조종환 최경용 최상호 최치광
- 《교회》 순복음전교회(김주환목사) / 순천중앙장로교회(사공정목사) / 순천석사감리교회(임택목사) / 순천중앙장로교회(윤철목사) / 순천중앙장로교회(권오서목사) / 순천중앙장로교회(이원호목사) / 순천중앙장로교회(임신영목사) / 순천중앙장로교회(신성관목사) / 순천중앙장로교회(최정목사) / 순천중앙장로교회(정재호목사) / 순천중앙장로교회(이은주목사) / 하남교회(김길홍목사)
- 《단체》 신창교회(유성전설) / 이윤구(영광한의원) / 조은계/기정회(메도병원 선교센터) / 이관호/영은성(알로마아일랜드)
- 《특별후원》 한순수 / 유근창 / 김영명
- 《후원회지》 농협 203-02-280238 (예금주: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예금주:조남진) 조흥 716-01-001389 (예금주:조남진) 조흥 711-04-123620 (예금주:조종환)

시인의 마음

엊그제 아흔세살된 인자하신 할머니 한 분이 천수를 다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문장을 다나온 일이 있었다. 원래 장간의 이별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영원한 이별이 되고 보면 그 슬픔이 오죽하랴. 그러나 천수를 누린 죽음만큼은 소위 호상(好喪)이라 하여 상주나 상객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상례를 치르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날의 상주는 결코 가벼운 슬픔이 아니었다. 진실은 말이 될 때 이미 진실이 아니라고 해서인가? 가슴 밑바닥에서 터져 나오는 절제된 열물이 없는데 전이되어 함께 울지 않은 이 주변에 있었다. '일차 무식'이요 농사밖에 모르는 할머니 무식한 세상에 오신 소명을 누구보다 훌륭히 마치고 가셨기에 더 가슴 아프다'고

내 생명의 소명(召命)은 ?

했고 '출고 배고른 시절에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두손 하나로 경직하고 근면한 농부를 길러 냈으며 또 할머니의 흙 묻은 손과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느니 법을 배운 손자는 훌륭하게 성장하여 대학장단에서 그 할머니의 유혼을 자랑스럽게 강설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가슴아프지 않나'고도 했다. 이날 문상 갔다가 느닷없이 돌아켜 생각하게 된 화두는 '존재에 대한 소명'과 '세상사랑(利他)'이었다.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지위나 지직과는 무관한 듯 배움의 대상 또한 경륜이나 지식과는 무관한 것인가. 그래서 생이 길을 가도 그 중에 스승이 있다고 했단다. 정말로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믿겨 부여받은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짧지 않은 세월동안 이 세상에

존재해왔던 나의 소명은 무엇이고 제대로 해 내기는 했는지 한번 짚어 봐야 할 것만 같다. 더구나 지금은 할일이 많고 바빠서 돌아켜 생각해 볼 여유가 아닌가? 만약 60살까지 지내며 돌아와 온 그간의 내 삶이 모두 자기중심의 세속적인 가치로만 일관해 왔다면 지금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답답한지도 모른다. 더구나 자기 다가오는 인생의 끝자락을 멀거니 건너다보면서 아직도 무엇인가에 쫓기듯 인생의 지락을 쫓아 세월만 죽고 있는 내 자신은 더욱 나를 현실하게 하는 듯하다. 정작 해야 할 일은 게쳐두고 엉뚱한 것만 탐하다 보니 누구처럼 저 갈매 가져갈까 하나도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만 남은 여생을 통해 최선을 다해야 할 내 소명은 과연 무엇일까? 여짜다 이기(利己)로 굳어진 개인주의가 조금도 애착하지 않고 오히려 상식처럼 보인다면 요즘 그것도 자신의 것은 물론 할미의 소명까지 볼 수 있었던 지성은 죽음은 안타까워하는 슬픔 못지 않게 님다르다 싶었던가 아들 같은 젊은이에게서 받은 놀라움이었기에 정신 없이 살고 있는 내 삶에의 충격이 내게 더 크게 다가온 듯 했다.



장국광 수필가
전. 김원희 회
전문위원

레크레이션

청소년(우리의 자녀들)들의 컴퓨터 중독

정보통신의 혁명과 밀접한 인터넷 시대를 사는 우리 청소년들은 컴퓨터를 매우 가까이 접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고, 컴퓨터는 청소년들의 무한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의 장이 되어왔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컴퓨터 사용이 게임이나 오락, 음란물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과 지나친 몰두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문제 등 많은 현실 부정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컴퓨터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그 부작용을 여의한지, 더 나아가 컴퓨터 중독과 같은 심각한 상습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해결방안을 정리해 본다.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 39 청소년의 pc중독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빠른 것을 선호하는 국민적 특성과 뜨거운 교육열에 힘입어 컴퓨터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부모들은 컴퓨터를 자녀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기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최선일 컴퓨터를 다루어 장래에 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도시와 지방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1. 청소년들의 컴퓨터 소유 현황

한국정보문화센터가 1999년 4월29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13~64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정보생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컴퓨터 보급률은 51.8%로 2가구중 1가구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훨씬 더 많은 보급률이 상습되었을 것이다. 특히 10대 청소년은 3명당 2명(66.5%)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컴퓨터 이용자들은 하루 2시간 35분 정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젊은 연령

층의 25%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조선일보 1999/05/20)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의 상담전화 인터뷰 조사(1999년)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4명당 3명(75%)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35%가 PC통신을 하고 있으며 18%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2. 청소년과 컴퓨터

기성세대는 컴퓨터를 골치 아픈게 생각한다. 그리고 컴퓨터를 다루는 것 자체를 두려워 하기도 한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컴퓨터에 대한 부담이 없다. 나아가 어린 청소년들도 선물 받고 싶은 것의 1순위는 컴퓨터를 선물할 정도로 컴퓨터를 좋아한다. 프로그램의 매뉴얼이 없는 경우에도 이것저것 만지며 자연스럽게 사용법을 익혀 활용하고 있다. 컴퓨터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친한 친구이자, 재미있는 오락기이자, 오디오이자, 책상

위에 TV이자. 말 잘 듣는 충실한 부하로 지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컴퓨터를 주로 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에 사용하고 공부에 활용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다루면서 얻는 가장 큰 이득은 무엇일까? 그것은 컴퓨터에 익숙해 진다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혁명, 넷을 벗어나기 위해 겪는 시행착오의 시간을 청소년들은 즐겁게 뛰어넘어 정보화 시대의 일원으로 쉽게 합류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컴퓨터 중독증에 대해서)



정진원 장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강원지부 명예회장

믿음의 지표가 된 기드온 용사화 교육

나는 내 평생의 삶 속에서 절없이 남도록 군생활과 공직생활을 하면서 삶의 기본이 되는 의, 식, 주를 해결하면서 특한 임무를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생활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지상에서, 공중에서, 지하에서, 해상에서 또한 그보다 더한 특별한 교육도 받아왔다. 그러나 그 반대도 그러한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베풀어주셨던 것이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민심의 동향을 위해 지역 민심의 중심을 위해 지역관장으로 회의를 나가야 했던 첫걸음의 생각이 난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마음속 깊이 '믿음'이란 단어를 메달리게 되고 '성경말씀'을 보게 되고 한가지한가지를 알게 되고 '복사님'들의 설교말씀을 듣고 감동을 조금씩 받게 된 것이다. 십자가의 횡과 종의 역사와 보리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숨은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기드온' 용사화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 평생 이 세상 끝나는 그 날까지 '성경' 제만을 들고 허를 좋은 육신만 교화

는 건물로 왔다갔다 했다가 하는 마치 시계주 같은 신앙생활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드온 용사화 교육”

그 교육은 신앙인이라면 1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그 보다 더 오래된 토대의 신앙인이라도 권하고 싶은 교육이다. 그 그리고 요한나 하느님의 깊은 진리는 모르지만 믿고 첫 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도' 언덕을 올라야 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무기는 발자국을 옮길 때는 작은 가슴속에서 터져 나오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믿고 2일째의 '성경'의 교육은 어떠한가? 나는 한평생 특수한 교육과 특별한 생활로 단 한년도 누구에게 아쉬워하고 허리 굽혀 보지 않고 내 생애, 내 멋대로 강간이 3-4번 빈하도록 생활한 내가 아닌 남을 섬겨보지 않은 처음이다.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내 가족을 그처럼 섬기어 보

았는가를 묻고 싶다. 믿고 3일째는 작은 '천국'을 다녀왔다. 그러면 아주 작은 한기통이의 '천국'길을 걸으며 천상의 문으로 들어가 '천국'의 한 귀퉁이를 돌아보고 나는 무엇을 느끼고 싶은가 생각한다.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수료하는 날, '성전'에서 어떤가? 그 경건하고 엄숙하면서 기도하는 원로목사님께서도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예식은 이 세상 어느 예식보다도 강렬한 예식이었다. 그 뻔한가? 입교하기 위해 헌관복에 들어서면 정신을 가다듬지 못할 만큼 황홀하고 경쾌하면서도 즐거운 '천사'들의 '찬양'이 수료하는 그 시간까지 눈물을 흘리게 하고 웃음을 주기도 하고 '천국 천사'들의 '찬양'이 이어지고 나는 오직유무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있으며 지금도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때면 나도 모르게 두손과 팔이 어깨위로 뻗는다.

기드온 용사화 교육?

그 교육은 나의 '믿음의 지표'가 되

어 내 평생의 마음을 울려주리게 하고 내 육신의 힘(力)이 있는 한 '주님께 하듯이' 살아가고 싶다. '믿음'이 '불안'한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갈로고요? 전사고요? 전사고요? 성경재판 들고 성전을 찾지 말고 돌만 찾다가 가는 성도가 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시려면 '기드온 용사화 교육'을 받으십시오. 자신 있게 성도님을 권면하면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문의: 018-278-9291)

나는 앞으로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기드온 용사화교육 봉사자로서 성령님이 임하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이국정 집사
순천중앙성결교회

나 주 하나님께 말한다. 그 날이 오면, 내 마음 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 내가 용감한 생각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혼자 속으로, 성벽이 없이 사는 마을로 쳐들어갔다. 평안히 살고 있는 제 평화를 사람들에게로 쳐들어갔다.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문지방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덮쳐서 물건을 약탈하며 노략질하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가 돌아와서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던 땅에 다시 정착하여 가족과 재산을 늘려 가려고 하고 있는 백성들, 손을 들어 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삼인들과 젊은 용사들이 너를 비난할 것이다. 내가 노략질이나 하려고 가는 것이냐고, 네가 강탈이나 하려고 군대를 동원하였느냐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가려고, 가족과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엄청난 전리품을 약탈해 가려고 원정군에 나섰느냐고 비난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께 말한다. 팔을 든 자가 저의귀를 죽일 것이다. 내가 전열병과 피 비린내 나는 일로 그 이름을 삼았었다. 또 내가, 역시 같은 소나기와 돌들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율법을, 꼭대기 그와 함께 한 많은 연합군 위에 퍼붓었다. 내가 이렇게 못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 위험을 떨치고 나서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면, 그 때에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요한세번에 에스겔 말씀)

흥천 신우회 정기총회 임원개선

흥천군 신우회(회장 이상순장로)는 지난 1월 16일 흥천회당교회(김광섭 신부) 지도목사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전년도 사업 결산 보고회와 임원을 개선하여 김자경(자치행정과장) 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3대회장으로 민원봉사와 이상순 장로(지적행정담당)를 회장으로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다. 또한 흥천신우회 인터넷카페를 개설하여 오 늘도 말씀으로, 성경과 나눔, 은혜의 글과 찬양, 중보기도를 통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로 하였다. 흥천군 신우회는 2월 18일(월) 저녁매부집 식당에서 정오 기도회를 열었다.

※ 카페주소 (http://cafe.daum.net/hongchunjesu)

【2003년 흥천신우회 임원】

▲지도목사: 김광섭 ▲고문: 김자경

▲회장: 이상순 ▲부회장: 김홍기, 원은숙, 조복원 ▲총무: 홍영철 ▲회계: 김혜경 ▲서기: 황일동 ▲조직부장: 정문봉 ▲선교부장: 변도환 ▲봉사부장: 조예희 ▲친교부장: 서옥순 ▲음악부장: 조항란 ▲보도부장: 박순원 ▲감사: 강무섭, 홍현숙

【2003년 사업계획】

- 정오기도회: 매월 첫째주 목요일 12시(정오), 12회
- 순회 헌신예배: 분기 1회(4회)
- 순회교회 장학금 지원: 각 2명(4회)
- 미자교회 지원: 2개교회 각 10만(24회)
- 관내 초교과교 회향사, 청소년행사 지원: 수시
- 연말 불우 이웃돕기 1회

흥천신우회 회장 이상순 장로



할렐루야! 주님에 이롭으니 인사드립니다.

흥천신우회를 조직한지 햇수 4년을 보내어 정

확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 2대 김자경 회장님의 뒤를 이어 부족한 제가 회장직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임기동안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회원 여러분

께서 지금까지 협력해 주셨듯이 앞으로 더 변화 없는 협조를 당부하며 임기 동안 직장 복음화와 초교과적 교회일치, 지역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정기총회와 2월 6일 임원회의를 통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 2003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 정오기도회 시간을 통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과 제책을 부탁드립니다.

제62회 감리교 동부연회 개최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감독 권오서목사)가 오는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년 연회는 연회일정을 1박2일로 단축하는 모델을 위하여 지난해에 개최했던 중앙교회와 시설과 공간이 넉넉하므로 연이어 금년에도 연회

를 춘천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금년 연회의 특징은 순서 중 상당부분을 영상으로 처리하고 각 지방의 특성을 소개하는 "부스"를 설치하는 등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회의 진행을 하기로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제11기 엘더선교사 파송예배

- 14인의 선교사 파송, 총 177명 사역전력 -

춘천제일성결교회(박상호 담임목사)는 지난 1월 26일 오후 5시 30분 본 교회당에서 제11기 엘더선교사 14명에 대한 헌지 파송예배를 드리고 선교사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이들은 선교사명을 가슴에 안고 1천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박상호목사는 "예수의 종인들"이란 설교말씀으로 선교사들의 믿음을 다시한번 굳건히 했으며 파송받은 선교사로서의 각오를 발간할 수 있었다. 이날 파송예배에 참석한 고제지도자들은 선교사의 귀한 사명을 받은 교대출신의 인재들을

양육하고 파송하는 교회 앞에 감사와 찬사로 축사했으며 학교교사란 직업을 부업으로, 선교사의 사역을 본업으로 삼아 분별제신하여 목표를 달성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선교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엘더선교사로 임명장을 받은 선교사들은 목사, 장로들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았고 가족, 친지, 동료선배들의 축하 속에서 용기백배한 모습으로 파송받았다. 이들의 선교사역으로 예수님과 구원받는 학생들이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농업기술원 직장선교회 신년예배

- 98년 창립 퇴직자들과 협력 복음사역에 나서다 -

강원도 농업기술원 기독교신우회(회장 김시창집사)는 1월 27일 오후 5시 30분 본원 3층 회의실에서 직장복음화를 위한 새해 첫 예배를 드렸다. 직장을 대표한 실현을 원장, 최동우 장로(전원장), 조병국 장로, 김중진 연구원지도교수 등 원로회원들과 남녀 회원 20여명이 함께 새해를 다짐하

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다. 동 선교회는 98년 12월 26일 최동우 전원장이 재임시 창립하고 이끌어 왔으나 퇴임 후 유령무실한 상태로 힘을 잃고 있으며 일부회원이 회개하고 직장복음화의 사명으로 결집, 새해 첫 예배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퇴직회원들과 함께 복음사역에 앞장설 것

이라는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농업기술원의 복음화가 눈에 보이는 듯 했다. 이날 설교에서 조병국 목사(직장선교원 지도목사)는 "천상의 가치를 추구하라"는 제목으로 율령들을 찾고 땅에 있을 것을 생각지 말라, 오늘 날 기독교인들이 지나칠 정도로 세속화, 물질 지상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다며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깊이 깨닫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본 신교회는 다음의 실천덕목을 정하고 지켜나가기로 했다.

①기도로 업무 시작하기 ②내가 먼저 인사하기 ③만나는 사람 예수님처럼 모시기 ④어려운 이웃돕기 ⑤업무능력 인정받기 ⑥공공시설 아끼기 ⑦간소한 식사하기 ⑧공공의 세우고 부정은 멀리하기 ⑨동료에게 예수 전하기 ⑩내가 있는 곳에 화평이루기

이들은 10개월 같은 덕목을 실천하므로 직장복음화에 전력할 경우하기로 했다.

춘천제일장로교회 재직세미나 교육



박 상 호 목사

춘천제일장로교회(박상호 목사)는 지난 1월 5-7일까지 교회 본당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전원을 대상으로 2003년도 세미나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회는 1일5회원회를 두고 각 부서별로 부과된 임무수행, 즉 교회다운 교회교육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장로교의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 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춘천지역 다른 교회들도 나름대로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머지않아 많은 교회들의 변화된 모습이 기대된다. 교회의 재직은 그 교회의 얼굴이므로 교육훈련은 반드시 실행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한 교회의 재직이 변화하면 그 교회가 변화하고 나아가 지역 시민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교육은 전달하고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효과를 배로 높이는 참교육임을 간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재직을 육성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장로로 진출한 교육이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예배위원회: 김주국장로(예배부) 마칠규장로(찬양부) 박두민장로(봉사부) ▲교육위원회: 김경호장로(교육부) 박동성장로(청장년부) 심상우장로(장학부) ▲선교위원회: 황병호장로(해외선교부) 전은종장로(국내선교부) 장병주장로(전도부) ▲재무위원회: 전은종장로(재정부) 최경용장로(경조부) 피영환장로(사회복지부) ▲관리위원회: 한남수장로(관리부) 최경용장로(차량부) 박성기장로(사무부)

성신신문운영위원장 조은제 목사 선출

춘천성신본부 내에 있는 성신신문 운영위원회는 2월 8일 오후 1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운영규정 개정과 사업계획을 검토 결정하였으며 보다 나은 신문발행을 위하여 조직을 보완하고 임원을 개선했다. 동 위원회는 총무단을 핵심으로 논설, 칼럼 등을 검토하고 신문은 편집에 심혈을 쏟기로 했으며 후원자 개발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위원장 조은제목사 ▲지도위원 유근장 장로 ▲기자단장 김동열 장로 ▲편집장 조은제 목사 ▲교회담당 총무 이영규 장로 ▲부총무 민병업 장로 김성욱 장로 ▲선교담당 연

한제 담당총무 박상운 장로 ▲부총무 김유일 총무장로 전상훈 피택장로 ▲업체,개인담당 총무 신종철 피택장로 ▲부총무 김원호 권사 최계천 안수집사 ▲해외담당기자 기정희 권사 ▲국내담당기자 이상순 장로(흥천)

목사위원은 지도자문역을 담당키로 하였으며 24명의 위원들은 명예 기자 역할과 교회, 단체, 선교회, 업체, 개인 후원자 개발에 노력하기로 했다. 성신신문운영위원회는 오는 9월 신문장간 5주년을 감사하는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하기로 하였다.



CBS 소년소녀합창단 겨울캠프

CBS 기독교춘천방송 소년소녀합창단(단장 신종철)은 2월 6-7일 만리원교회 흥천수양관에서 합창단 능력향상 교육 훈련을 실시했다. 단원 40명 함께 이문과 실기훈련의 캠프를 가졌으며 일부 학부모들이 동참 후원하였다. 초청강사는 김성환 춘천시립합창단 지휘자로 합창단원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CBS합창단장: 신종철 지휘자: 최정주 반주자: 손유리에



성서만평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지구의 봄을 위해 기도.....

재단법인 한국대학생 선교회 부설 C.C.C. 어린이집 원아모집

“사랑과 기도의 어머니처럼”

C.C.C. 어린이집은 사랑과 기도의 어머니처럼 원아를 돌보며 풍부한 인적자원과 넓은 실내·외 전원을 이공간, 대강당 및 4개의 교실을 활용한 최상의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집니다.

- ◆ 원목: 정경호 목사(춘천 C.C.C. 대표)
- ◆ 원훈: 어린이 마음마다 하나님 사랑가득
- ◆ 운영이사(주이사회)에 의한 정칙과 신문을 바탕으로 한 운영
- 이준택장로(서울치과원장) 조은제목사(베드로정령외과 원장) 신성균교수(강원대) 정경원교수(강원대) 장관집사(아이마당어린이집) 장기영지자(강원대) 이길호집사(조흥은행지점장) 유병립권사(영원옥집사(사우아인리빙))
- ◆ 교육: 연령별 4개반 구성/ 각 수준에 알맞은 언어, 수, 과학, 음악, 미술, 신체활동, 놀이활동 / 전문강사를 통한 피아노 / 미술 / 영어 / 유아체육

- ◆ 놀이시설 신양교육: 주1회 어린이 재능, 쿼터랜드 점목 교육
- ◆ 자연학습장 운영을 통한 연장제점
- ◆ 부모교육세미나 실시
- ◆ 교사: 이경원(원장) 이경순(경력10년) 백은정(경력6년) 서지연(경력2년)
- ◆ 특기교육: 영어(전문강사초빙) 태권도(박신철:국가대표출신) 피아노(이경원:강사경력10년)
- ◆ 보조교사: 신현미(강원대) 신동아(춘천교육대)

※ 원아모집 ※

모집대상: 4개반 각 20명 (보육반 2명씩 선착순 모집)
세월반(4세) 돌기반(5세) 열매반(6세) 할기반(7세)

※ 원세만·저소득층 자녀, 형제 같은

장소: 033/255-5776 / 254-5776 C.C.C. 어린이집



춘천 열린교회

담임목사 신성균

강원도 춘천시 회계동 426-8 / 교회사무실: TEL. (033) 253-7227

베드로선교센터

정형외과전문의(의학박사) 조은제 목사
신경정신과 전문의 기정희 권사

춘천시 효자2동 312-1 법원 옆 TEL. 253-5171

영광한의원

진료과목
내과·소아과·부인과·치과

원장 이영규 장로
춘천시 후평2동 801-2번지 TEL. (033) 251-2003~4